

커버스토리

페스티로폴의 재활용 촉진 전기 마련



올 '96년은 페스티로폴의 재활용 촉진에 전기를 마련한 해이다. 지난 3월부터 전국 시군구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분리수거가 시작되었고, 내년 1월에는 전국적으로 분리수거제가 시행되는 등 페스티로폴의 재활용 체제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재활용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이며 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노력 또한 큰 힘이 되었다. KfRA는 '96년은 '스티로폴 회수·재활용 체제 구축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1. 발생 유형별 회수·재활용 체제 구축

협회는 우선 발생처 유형별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각 시·군·구에 감용기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 왔는데 올해는 총 72개소에 약 2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감용기 운전 요령 교육 및 A/S 기동반을 운영하여 서울 25개 구청에서 2회에 걸쳐 75명을 교육하였다.

또한 가전 완충제의 역루트 회수·재활용 처리의

공동 추진을 위해 삼성전자와 지난 2월 협정을 맺은 데 이어 LG전자와도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로 최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생 잉고트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비축 창고를 임대 운영하고, 재생 잉고트의 수출선을 확보하여 9월말 현재 1,200톤을 수출했다. 이와 함께 2대의 시범 회수 차량을 운행하여 지자체의 적체 잉고트를 긴급 운반해 주는 등의 노력을 경주했다.

그 결과 금년 상반기 페스티로폴 재활용 실적은 6천 55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천 2백 20톤에 비해 16%나 증가했다.

2. 스티로폴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 및 국제 협력의 강화

본 협회보인 「환경사랑」을 지자체나 각급 학교 등에 1만여 부를 배포하고 있으며 중앙일보사 주최의 환경산업전 등 전시회에 적극 참가하고, 농산물 포장 기술 세미나 등 관련 세미나 개최를 적극 지원했다.

국제 협력의 강화를 위해 AMEPS(아시아생산자기구) 총회 참석, AMEPS 회원국 확대 노력, 국제협력기구(ITF) 가입 등의 활발한 노력을 경주했다.

3. 페스티로폴 재활용 촉진

재생품의 수요 창출에 노력해 온 협회는 기념품용으로 재생 액자를 구입하여 배포해 오고 있으며, 페플라스틱의 고체 연구화 기술을 국내에 소개하여 이의 확산을 도모하는 등 재생 업체의 지원과 협력 방안을 적극 장구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내년도 전국에서 시행될 페스티로폴 분리수거제의 시행에 대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